

새한, 고결정성 PET 세계최초 개발

GE 테스트 거쳐 특허출원 ... PBT 대체로 2005년 매출 1000억원 목표

새한(대표 박광업)이 나노기술을 응용한 고결정성(Super Crystallization) PET 개발에 성공했다.

새한은 11월19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나노분산 기술을 바탕으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중합과정에서 작은 입자의 실리카(Silicon Dioxide)를 첨가해 분산시킴으로써, 기존의 PET에 비해 결정화 속도가 6배 강화된 고결정성 PE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PET는 결정속도가 늦어 자동차, 전자제품 등 EP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해 주로 PBT(Polybutylene Terephthalate)가 사용돼 왔다. 그러나 PBT는 PET에 비해 가격이 훨씬 비싸고 내열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

새한은 새로 개발한 고결정성 PET로 원가절감, 품질개선 등의 강점을 앞세워 기존 PBT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고결정성 PET가 대체할 EP용 PBT 시장규모는 2003년 세계 8000억원, 국내 500억원으로, 새한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2004년 300억원, 2005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2003년 10월 미국 GE의 테스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탁월한 제품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 국내 특허등록을 완료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특허 출원중이다.

한편, 새한은 2003년 10월 말 나노기술을 접목한 직물가공기술을 미국 벌링턴과 공동으로 개발한 데 이어, 고결정성 PET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화학섬유 사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1/20>